

# 무연탄, 중국도 북한산 안쓰고...

## 기술·자본 부족으로 품질저하 ... 중국기술 의존도 다시 높아질 듯

북한 무연탄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중국 관련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북·중 무역종사자에 따르면,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국이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.

중국무역 관계자는 “북한과 구매계약을 할 때는 무연탄 회분함량이 15-17%였지만 실제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검사하면 회분 함량이 18-21% 달한다”면서 “값을 깎거나 그대로 반송하기도 한다”고 밝혔다.

북한은 채굴이 쉬운 좋은 석탄을 대량으로 캐내면서 양질의 석탄이 바다나 외화벌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대북 소식통은 “북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선탄공장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계속 떨어질 것”며 “북한산 무연탄을 취급하는 중국기업 사이에도 이미 <품질 주의보>가 내려졌다”고 말했다.

북한은 2010년 한국의 5·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경제난 해소를 위해 석탄, 철광석, 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.

코트라(KOTRA) 자료에 따르면, 2011년 북한의 광물성 생산제품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138.1% 늘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.4%에 달했다.

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했으며,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광산 개발이 어려워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12>